

 <b>대외경제정책연구원</b>  <b>보도자료</b>	배포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09:00	매 수	4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6매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미주팀 홍성우 부연구위원 ☎044-414-1150 ✉swhong@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 044-414-1175		

## KIEP,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한 브라질 경제 · 비즈니스 환경 점검하고 유망 진출 분야 모색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및 외교부와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공동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위험 점검
-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브라질 진출 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0월 20일(수)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브라질과 한국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 및 관계가 급변함에 따라, 팬데믹 시대의 브라질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브라질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 루이스 로페스(Luís Henrique Sobreira Lopes) 주한브라질대사관 대사, 파비우 파리아(Fábio Faria) 브라질 통신부 장관,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변화한

경제·비즈니스 환경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이 스타트업과 디지털 부문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열 번째를 맞이한 세미나가 양국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12차 한-브라질 고위 정책협의회 개최('21.10.7), 파비우 파리아(Fábio Faria) 통신부 장관 방한 및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 MOU 개정안 서명('21.8), 마르쿠스 폰치스(Marcos Cesar Pontes)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방한 및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개최('21.3) 등 최근 양국 간에 있었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계간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서도 유익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한 파리아(Fábio Faria) 통신부 장관은 “브라질은 성장잠재력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통신시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11월 4일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달러의 5G 국제 입찰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과 한국과의 디지털 기술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브라질의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홍성우 KIEP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박미숙 KIEP 전문연구원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따른 브라질 경제의 리스크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박미숙 전문연구원은 브라질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이겨내며 기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세계 공급망 쇼크, 기후불순에 따른 전력난 및 농업생산 감소, 환율 및 물가 상승, 정치 불안과 같은 위험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웨슬리 까르디아(Wesley Cardia) 투자유치프로그램(PPI) 차관은 “브라질 인프라 개발 현황과 협력 기회”라는 주제 발표에서 투자유치 허브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을 소개하고, 특히 환경보호와 지방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베라 토르스텐센(Vera Thorstensen) 제틀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교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출범 30년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남미공동시장 FTA 협상 지연을 감안하여 한국-브라질 FTA 체결 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베라 교수는 한국-브라질 FTA가 양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국-남미공동시장 FTA 협상은 한국-브라질 FTA와 다른 선상에 두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기회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로 브라질 내 스타트업 환경과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조희문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협업전략 및 한-브라질 딥테크 협력방안”을 주제로 장식진 본투글로벌센터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식진 팀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본투글로벌센터의 국제적인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주요 협력분야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의 길잡이가 될 양국의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교류 및 합작투자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안데르손 띵스(Anderson Thees) Redpoint Eventures 매니징 파트너는 “브라질의 스타트업 창업 환경과 해외 스타트업의 브라질 내 창업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스타트업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2021년 기준 34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마르셀루 뿌라따(Marcelo Prata) Resale 대표는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다. 마르셀루 뿌라따 대표는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 금융시장 혁신(핀테크), 물류 투자 확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성숙단계에 있는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은 한층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프로그램

별첨.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웹초청장

/끝/

붙임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프로그램

## 프로그램

08:00 - 08:30 사전 입장

08:30 - 08:50

### 개회식

- ▶ 개회사 : 조충제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환영사 : 최종욱 국장 (외교부 중남미국)
- ▶ 환영사 : 편무원 부회장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 ▶ 축사 : 루이스 로베스 대사 (주한브라질대사관)

08:50 - 09:00

### 기조연설

- ▶ 파비우 파리아 장관 (브라질 통신부)

09:00 - 10:20

### 제1부 : 코로나 팬데믹 시대 브라질의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사회 : 홍성우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 발표 1 :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따른 브라질 경제의 리스크와 전망  
발표자 : 박미숙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 발표 2 : 브라질 인프라 개발 현황과 협력기회  
발표자 : 웨슬리 까르디아 차관 (투자유치프로그램, PPI)  
아달베르투 네투 투자실장 (브라질 무역투자청, Apex-Brasil)
- ▶ 발표 3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출범 30년 평가와 발전 방향  
발표자 : 베라 토르스텐센 교수 (제플리우 바르가스 재단, FGV)

10:20 - 10:30

### 휴식(Coffee Break)

10:30 - 11:50

### 제2부 :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기회와 활용

사회 : 조희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

- ▶ 발표 1 : 글로벌 스타트업 협업전략 및 한-브라질 딥테크 협력방안  
발표자 : 장석진 글로벌 사업협력팀장 (Bom2Global)
- ▶ 발표 2 : 브라질의 스타트업 창업 환경과 해외 스타트업 기업의 브라질 내 창업 사례  
발표자 : 안데르손 띵스 매니징 파트너 (Redpoint Ventures)
- ▶ 발표 3 :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발표자 : 마르셀루 뽀라따 대표 (Resale)

[사진1]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단체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0월 20일(수)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 루이스 로베스 주한브라질대사관 대사,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 [사진2] KIEP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개회사



▲10월 20일(수) 개최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3]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 환영사



▲10월 20일(수) 개최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이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4]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환영사



▲10월 20일(수) 개최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이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5] 루이스 로페스 주한브라질대사관 대사 축사



▲10월 20일(수) 개최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루이스 로페스 주한브라질대사관 대사가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6]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행사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0월 20일(수)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제10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